

[발표 3]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이상은(숭실대)

I. 서론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 중의 하나는 모든 아동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아동들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들의 성인기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일 것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 중의 하나는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나중에 부유한 성인이 되고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나중에 가난한 성인이 되는 경제적 지위의 세습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일 것이다. 부모의 빈곤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이전되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의 정도는 한 사회의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에 대해 빈곤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와 태도가 가족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되어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보수적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가구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경우 자원의 상대적 결핍으로 인적자본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 빠진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어떠한 종류의 주장이든 미국에서 상당정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듯하다. 또한 미국에서의 실증적 연구들도 상당정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흑인들과 현재의 만성빈곤자들 중에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신의 성인기 빈곤으로 이전되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ill and Ponza, 1983; Cocoran, 1995; Cocoran and Adams, 1997).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의 세대간 이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그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빈곤의 평등화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기반위에서 활발한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부의 축적과 사교육 열풍 등으로 인하여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최근에 김위정(2007)이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전 현상을 연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떠한 종류의 소득을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주로 만성빈곤과 단기빈곤의 차이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

한 종합적 그림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

1.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빈곤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빈곤과 자녀의 빈곤이다. 부모의 빈곤 상태는 기본적으로 아동기의 부모 소득과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직접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복지패널은 아동기의 부모 소득과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부모의 빈곤을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동기(만 0-17세)의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에 대해 5점 척도(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로 조사한 내용이 있다. 이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빈곤을 두가지 경우로 정의한다. 하나는 “매우가난”했던 경우를 부모 빈곤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경우를 부모 비빈곤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다(부모빈곤1 변수). 다른 하나는 “매우가난”과 “가난”을 부모 빈곤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경우를 부모 비빈곤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다(부모빈곤2 변수).

자녀 빈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구소득과 가구원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네가지의 정의를 이용한다. 첫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진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빈곤1). 둘째, 균등화된 소득이 전체 가구 중 하위 10%에 속한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빈곤2). 셋째, 균등화된 소득이 전체 가구의 5분위 분류에서 1분위에 속한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빈곤3). 넷째,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5분위 분류에서 1또는 2분위에 속한 경우 빈곤상태로 정의한다(자녀빈곤4). 소득분위는 가구자료에서 가구들의 소득분위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균등화된 소득은 (가구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계산하였다.

<표 1> 부모빈곤, 자녀빈곤, 그리고 아동기 가족배경 변수들

	주요 변수들	조작적 정의
부모빈곤 (아동기 빈곤)	부모빈곤1	1=아동기 경제적 상태가 “매우가난” 0=나머지 응답들
	부모빈곤2	1=아동기 경제적 상태가 “매우가난” 또는 “가난”. 0=나머지 응답들
	부모의 소득수준	1.매우가난, 2.가난, 3.보통, 4.부유, 5. 매우부유
자녀빈곤 (성인기 빈곤)	자녀빈곤1	1=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0=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자녀빈곤2	1=균등화된 소득의 10분위 중 1분위
	자녀빈곤3	1=균등화된 소득의 5분위 중 1분위 0=2분위 이상
	자녀빈곤4	1=균등화된 소득의 5분위 중 1과 2분위 0=3분위 이상
	자녀의 소득수준	소득5분위 분류상의 분위(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자료는 7,072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개인자료는 14,469명의 개인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료에 가구자료의 정보들을 결합한 개인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성인들의 빈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전체 개인 자료중에서 연령이 30세에서 59세 사이에 속한 사람들로 표본을 제한한다. 그 결과 최종 개인자료에는 총 7,618명이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빈곤 이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부모 빈곤(자녀의 아동기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이행분석표(transition matrix)를 분석한다. 아동기 빈곤 여부에 따라 성인기에 빈곤한 정도를 교차 분석해 봄으로써 세대간 빈곤 이전의 경향을 묘사해(describe)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세대간 빈곤 이행 분석표 분석에서 카이스퀘어 통계량 등을 검토하여 부모 빈곤 지위에 따른 자녀 빈곤 지위에서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해 본다.

둘째, 부모 빈곤이 자녀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성인기 빈곤 상태이다. 독립변수는 부모의 빈곤 상태이다. 통제변수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 변수들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IV. 분석결과

1)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빈곤 이행표 분석 결과

<표 4>는 아동기 빈곤과 자녀의 성인기 빈곤간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성인기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크기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아동기 빈곤 경험 유무에 따른 성인기 빈곤에의 차이 여부는 빈곤의 정의에 의존하여 엇갈리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을 정도가 서로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두 번째와 네 번째 패널분석 결과 각각 부모 빈곤에 따른 자녀 성인기 빈곤에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어도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빈곤이행 분석표

			성인기 빈곤		계	카이제곱
			비빈곤	빈곤(최저생계비 미만)		
아 동 기 빈 곤	아동기 빈곤1	비빈곤	76.9	23.1	100.0	25.466***
		빈곤(매우가난)	66.6	33.4	100.0	
			비빈곤	빈곤(소득하위10%미만)	계	카이제곱
	아동기 빈곤1	비빈곤	88.9	11.1	100.0	0.426
		빈곤(매우가난)	87.9	12.1	100.0	
			비빈곤	빈곤(소득하위20%미만)	계	카이제곱
	아동기 빈곤1	비빈곤	82.8	17.2	100.0	18.171***
		빈곤(매우가난)	75.0	25.0	100.0	
		비빈곤	빈곤(소득하위40%미만)	계	카이제곱	
아동기 빈곤2	비빈곤	69.1	30.9	100.0	21.765***	
	빈곤(매우가난 또는 가난)	64.2	35.8	100.0		

<표 5>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경제적 지위 이행 분석표

구분		자녀의 성인기 소득수준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계
부모 경제적 상태	매우가난	25.0	18.6	23.9	17.9	14.6	100.0
	가난	17.0	17.5	20.3	24.7	20.6	100.0
	보통	17.2	13.1	19.7	23.3	26.7	100.0
	부유	17.5	16.0	19.0	19.9	27.5	100.0
	매우부유	21.2	11.5	20.5	15.8	31.1	100.0

+ Chi-square 값=109.338***

<표 5>는 아동기 경제상태와 자녀의 성인기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아동기에 매우가난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인기에도 소득1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높다. 그러나 그 정도 차이는 크지 않다. 특히 아동기에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 성인기에 소득1분위에 속한 경우도 21.2%로 아동기에 매우가난했던 사람에 비교하여 그 차이가 3.8% 포인트에 불과하다. 즉, 아동기 경제상태가 성인기 소득수준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 정도는 아주 약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아동기 빈곤(매우가난으로 응답한 경우)이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모델1은 개인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아동기 빈곤의 성인기 빈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2에서는 개인특성 변수들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가족배경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표 6> 아동기 빈곤(매우가난)의 자녀의 성인기 빈곤(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한 영향

	모델1				모델2			
	coeff.	s.e.	p-value	odds ratio	coeff.	s.e.	p-value	odds ratio
아동기빈곤(매우가난)-성인기빈곤(최저생계비미만) 정의시								
아동기 빈곤	0.294	0.108	0.006	1.342	0.274	0.115	0.017	1.315
아동기빈곤(매우가난)-성인기빈곤(소득하위10%) 정의시								
아동기 빈곤	0.116	0.152	0.447	1.123	0.109	0.163	0.502	1.116
아동기빈곤(매우가난)-성인기빈곤(소득하위20%) 정의시								
아동기 빈곤	0.344	0.117	0.003	1.411	0.335	0.126	0.008	1.397
아동기빈곤(매우가난 또는 가난)-성인기빈곤(소득하위40%) 정의시								
아동기 빈곤	-0.022	0.052	0.679	0.979	-0.019	0.055	0.725	0.981

모델1 독립변수들: 개인특성변수들(성, 연령, 교육년수,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기혼, 가구원수)이 포함됨.

모델2 독립변수들: 모델1에 아동기 가족배경 변수들(부모직업지위, 부모교육년수, 아동기부모사망, 아동기부모이혼, 아동기학업중단, 아동기친척집생활, 부모로부터의 유산 및 증여 변수)이 추가됨.

“아동기 빈곤1 대 성인기 빈곤1”과 “아동기 빈곤1 대 성인기 빈곤3”에서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기 빈곤1 대 성인기 빈곤2”와 “아동기 빈곤2 대 성인기 빈곤4”에서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그런데 앞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기 빈곤1(매우가난)과 성인기 빈곤2(소득하위10%)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5.3%와 11.2%로 가장 유사하고, 또한 아동기 빈곤2(매우가난 또는 가난)와 성인기 빈곤4(소득하위 40%미만)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35.4%와 32.8%로 가장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분포의 조형성 측면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열의 결과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 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